

# 삼성Atofina, 사고의 국제화 필요하다!

## 고흥식 사장, 시장경쟁력 우위만이 생존 열쇠 ... 사고의 선진화 강조

삼성Atofina가 8월8일 대산공장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삼성Atofina 고흥식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제 삼성Atofina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초우량 글로벌 화학기업(Leading Global Chemical Company)으로 거듭날 것을 제시했다.

Atofina가 기술력과 자금력, 판매 네트워크 면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므로 삼성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열정을 보탠다면 단기간 안에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고흥식 사장은 상호 이질적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화합과 배려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세계적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직원 개개인들이 사고의 국제화, 선진화를 조속히 이룩하자고 독려했다.

### 삼성Atofina 주요 경영진의 창립기념 식수



† 고흥식 사장(오른쪽 앞)과 스티브 코넬(Steve R. Cornell) 수석부사장(왼쪽 앞)

1988년 설립된 삼성Atofina의 전신 삼성종합화학에 대해서는 “내수 위주의 석유화학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온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으며,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교두보 역할을 견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삼성Atofina는 2003년 5월 프랑스 Atofina로부터 세계 화학업계의 단일 투자규모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 7억 7500만달러 외자유치 성공으로 탄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11>